

5·18 사적 '옛 국군 광주병원터' 공원 탈바꿈 시민 품으로

126억 들여 화정근린공원으로...치유의 숲·놀이터 등 조성

17년간 공원 조성사업...광주시, 12일 현판식·정책소풍 진행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옛 국군광주병원터가 녹색 휴식공간인 화정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해 광주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화정근린공원은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지켜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광주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재정공원이자,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

원 부지를 새롭게 조성한 도시공원인 화정근린공원을 시민에게 개방했다. 시는 오는 12일 화정근린공원에서 공원 준공 현판식과 함께 '정책소풍'도 진행할 계획이다.

화정근린공원은 기존 공원에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 등 9만6803㎡를 새로 편입해 총 10만7268㎡ 규모로 조성했으며, 주로 산책로 위주로 이용하던 공

간을 치유의 숲, 추모의 길, 어린이놀이터, 잔디광장,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등을 갖춘 도시공원으로 17년 만에 완성했다.

광주시는 5·18사적지로 지정한 병원 본관 등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건물 5개동을 보존하고, 기존 수림 등 자연 원형을 최대한 유지했다.

특히 기존 건물 철거부지 등 훼손된 구간은 치유의 숲, 추모의 길 등으로 새롭게 조성해 역사의 기억과 상처를 품어 안은 '치유·휴식 공간'으로 조성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또 오는 7월 개원 예정인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와 원활히 오갈 수 있도록 동선을 연결해 치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화정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총 126억원을 투입했으며, 보상비 84억원으로 사유지 5849㎡를 사들여 산책로·잔디광장·어린이놀이터 시설 등을 배치했다. 가로등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기존 건축물 철거·폐기물 처리비용 등에도 공사비 42억원을 투입했다.

화정근린공원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대상 공원에 시비를 투입하는 재정공원 조성사업 15곳 중 1곳이다.

2019년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도시계획변경사 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활용해 조성한 광주

공항 인근 신촌공원에 이어 두 번째 도시공원이다.

광주시는 앞서 2016년 화정근린공원을 '역사의 기억, 상처를 보듬는 치유의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다.

김준영 광주시 산하력추진본부장은 "수많은 시민이 고조를 겪었던 역사 현장이 치유·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화정공원은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지역 주민의 휴양, 건강, 치유 기능을 강화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수려한 영산강길 두바퀴로 달려요. 지난 31일 나주 영산강 둔치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영산강 자전거길 정비 비전선포식'이후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 및 참석자들이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을 우리나라 최고의 자전거길로 조성하기 위해 117억원을 투입하고 연장 77.7km에 걸쳐 노후 노면 정비, 단절 구간 연결, 자전거 거점 센터 설치 등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는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65억원을 들여 우선 40km를 정비한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교육통합지원체계 하반기 가동

조례개정안 공포...교육청·자치구·민간 참여 정책 발굴

광주시가 교육청, 자치구, 민간 등과 교육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광주시는 "광주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광주시의회를 통과해 지난 31일 공포·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라 민·관·학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등 광주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조례에는 교육청, 자치구, 민간 등 지역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교육협력체계'와 광주시·교육청이 구성할 '교육협력추진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협력추진단은 수평적 조직으로 구성된 비상설기구로, 매주 교육현안 과제를 선정해 지역교육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또 자치구, 민간 등과 함께 매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제안된 사업에 대한 조율·조정하면서 행·재정적 지원 등을 검토하게 된다.

시는 특히 교육협력추진단을 하반기에 구성하고, 교육청·자치구·민간 등과 실무협의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달 25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에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5개 자치구 등 9개 기관과 광주교육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통합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현 광주시 교육정책관은 "조례 개정은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시는 지속적인 교육 지원과 투자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공공기관-기업 원팀으로 실증·판로 개척

3차 공공기관장 회의...경제·문화·관광 거점 복합쇼핑몰 협력 모색

광주시가 공공기관과 힘을 모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실증을 지원하고 판로 확보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3차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과 지역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기술혁신인증제품 실증지원 사업 계획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이날 그동안 공공기관과 협력해 제품 개발·제조·인증까지 오랜 시간 제품개발·비용을 투자하고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15개사의 실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

기관이 직접 나서 실증 현장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직접 검증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은 공공기관 실증과 성과평가를 통한 성능개선과 판로개척의 기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술혁신인증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해 중앙부처의 기준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다.

광주시는 가로등시스템, 친환경 연료첨가제, 로봇추출 기능이 결합된 '소형 미세먼지 수거차' 등

97개사 164개 제품이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제품 시연·홍보의 장인 '매칭 데이' 등을 개최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이 최적의 제품과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소기업 실증 지원, 기업 유치, 도시의 활력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등과 상승효과(시너지)를 낼 때 우리의 공통 목표인 '시민 행복'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며 "지급처럼 각자의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는 부문을 찾는 등 마음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청년어업인 정책 체감도 높인다

전남도 '청바지 특' 어업인 간담회...정책 설명·애로 청취 등

전남도가 도내 청년어업인들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청년들의 어촌 지원 정책 완화를 위해 청년 어선·양식장 임대사업, 일자리·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착 자금 지원,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 귀어인의 집 조성 등 청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청년 어업인 정착 우수사례를 모아 책으로 엮어 교재로 사용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2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달 31일 제29회 바다의 날을 맞아 30여명의 도내 청년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접 전남도의 어업 정책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청 장보고전망대에서 '청년 어업인이 바라는 지역 어촌(청바지) 특'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어업-어촌인 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어업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 미래 수산업 발전 방향 모색 등이 논의됐다.

도내 청년 어업인, 수산계 학교 재학생 등이 현장 경험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김영록 지사와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하기도 했다. 청년 어업인이 도내 수산물에 활용해 개발한 다과를 시식하며, 청년 어업인 어촌 정착 우수사례 발표, 청년 어업인 사례 중심 자우소통, 청년 어업인 간 정보공유 등도 이뤄졌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대한민국 수산물 최대 생산지로 수산가공 분야에서도 선도하며 미래산업을 견인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청년 어업인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BYUN.G.U

SALE 5.22 ~ 6.8
70%~50%

변지유 창립 45주년 맞이 감사세일

이월 상품 70~50% 세일 | 신상품 30% (망블라우스 제외)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 062-222-7205 / 010-9287-7205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